

## 전반적인 LC 전략

### -문제유형에 익숙해져라

LC를 흔히 착각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많이 들으면 금새 점수가 향상될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사실 어휘력이 점수 향상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RC보다 LC가 더 그러하다. 모의고사 분량으로 봤을 때 10회분 정도를 반복 훈련하면서 그 안에 있는 문제의 유형에 익숙해지면 무작정 책 여러권을 들고 받아쓰기 하는 사람보다 단시간에 점수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청취력을 올려라

청취력이 안좋은 경우는 여러 가지인데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 있다.

#### A. 자신의 발음이 안좋으면 안들린다

사실 이 부분에서 조심스러워진다. 발음이 LC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나 발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보조적'역할로서 이왕이면 다홍치마격으로 봐야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원어민의 발음에 근접하게 발음을 만들 수 있다면 청취력 향상이란 당연해지는 것이다.

#### B. 큰소리로 읽는 것은 청취의 기본

이부분에서 필자는 너무나도 힘주어 말하고 싶다. 사실 그간의 LC 훈련은 받아쓰기가 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 토익 **speaking, writing**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소리내어 읽기, 말하기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쉬운 예로 같은 대본을 5번을 반복해 듣는 것보다 한번 의미를 음미하면서 소리내어 읽는게 더 효과가 큰 것이다.

### -TOEIC 빈출 표현을 익혀라

앞서 어휘력의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파트 1,2,3,4 각 파트별로 빈출 어휘와 속어는 무궁무진한 게 아니다. 기출 어휘를 중심으로 이 책에 소개된 표현들을 반복 학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자신이 직접 봐도 모르는 단어나 표현은 들어서 절대 알 수 없다.

###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라

역시 상식선에서 하는 얘기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유형별로 LC훈련을 우선적으로 했다면 그 다음은 좋은 문제를 푸는 양을 늘리는 것이다.

### -실전경험을 쌓아라

토익에서 RC도 마찬가지지만 LC는 실전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아무리 집에서 연습할 때 잘 되도 실전에서는 또 다른 것이다. LC는 시간과의 다툼이 절대적이므로 실전에서 경험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줄여나가면 100% 자기 실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 파트 1

### -문제 설명 시간을 적극 활용하라

RC보다 LC야 말로 촌각을 다투는 파트이다. 감독관이 문제지를 나눠주고 파본을 검사하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파트 1~4의 문제를 빠르게 파악해야한다. 특히 파트 1의 directions(안내문)은 80초 정도로 다른 파트보다 긴 편이다. 이 시간에 멍하니 듣고만 있다면 이는 문제풀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혹자는 RC를 푼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경험에 비추어 얘기하자면 파트 4를 먼저 문제파악한 후 파트 3까지 문제를 중간 중간 directions가 나올 때마다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파트 1은 어차피 문제가 따로 문제지에 없고 들어서 모두 해결해야하지만 파트 3,4는 문제와 답안이 모두 문제지에 있고 이를 제대로 파악해야 온전한 문제풀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 낭독이 시작하기전에 '월 묻는지'알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파트 1의 낭독시간은 파트 4와 파트 3의 문제 내용 파악에 집중하자.

### -사진을 잘 살핀다.

당연한 얘기지만 파트 1의 핵심은 사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물사진은 인물 동작과 인물의 특징, 사물배경사진은 사물들 간의 배열상태에 주목해야한다.

### -정오답 표시를 활용하라

파트 3, 4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짧다고 쉽게 생각하는 파트 1도 자칫 자신의 기억력만 믿다가는 낭패를 본다. 그래서 들으면서 답안지에 살짝 o(정답), x(오답)나 √(정답), /(오답)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자칫 다 듣고도 정답을 까먹는 일이 생기지 않게 방지할 수 있다.

### -빈출표현을 익혀라

흔히 LC에 있어서 오해하는 것이 점수가 안나오는 이유를 단순히 '발음, 연음에 약해서'로 오해하거나 '많이 안들어서'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단시간에 LC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어휘와 빈출 표현이다. 생각해보자, 글로 봐도 애매모호한 것은 들어서도 답을 맞출 리가 없는 것이다. **700**반 부교재에 나와 있는 정리가 잘 된 빈출표현들을 꼭 숙지하자.

### -주요 오답 패턴에 익숙해져라

**A. 사진에 없는 단어 함정**→ 당연한 얘기지만 주로 사물배경사진에서 있지도 않은 He나 They 같은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는 무조건 오답이다

사진에 있는 단어 함정→ 사진에 있다고 무조건 답으로 하면 안된다. 명사 말고도 반드시 동사를 잘 확인해야한다. 가령, 사진에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가지런히 접시가 놓여있다고 하자. 단순히 There are dishes on the table. 이라고 하면 답이 되겠지만, The woman is setting up the table.(여자가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다) 이나 table을 주어로 해서 The table is being set up.(테이블을 준비 중이다) 라고 하면 오답인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예문처럼 사물 배경사진에서 be being pp 형태의 수동태 진행형(~되고 있다)은 거의 대부분 오답임을 주지해야한다. 정리하자면, 인물이 없이 사물배경만 나올 경우 각 사물간의 배열

관계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므로 전치사 등에 주의해야하고 인물사진의 경우는 1인사진과 2인 이상 사진을 구분 지어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동사에 주목해야할 것이 파트 1의 주요 핵심사항중 하나이다.

**B. 사진과 관련된 단어 함정**→특히 주의를 기울여야할 유형이다. 가령 사진에 두 남자가 앉아 있고 가운데에 테이블과 커피 두 잔이 있다고 하자. 낭독되는 문장중에 **They are ordering another coffee.**(그들이 커피를 추가로 주문하고 있다)가 있다고 하면 분명 두 사람(they)이 나오고 커피도 나오지만 **order**(주문하다)라는 말에서 나머지 관련어가 있더라도 오답이다. 절대로 주의해야할 것이 바로 동사부분이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혹시 두 사람이 커피 주문을 하는 장면일 수도 있지 않나요?라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런데 파트 1은 절대적으로 100% 객관성(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정도의 사실)이 보장되지 않으면 오답이다. 주관적인 내용은 우선적으로 걸러내야 할 오답임을 잊지 말자.

**C. 사진과 반대되는 단어 함정**→앞서 설명한 관련어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사진에 있는 단어라도 답이 되지 않는 경우는 사진과 정반대의 묘사표현이다. 가령 두 남자가 서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책을 한권 건네는 장면이 있다고 하자. 이에 대한 정답은 **The man is handing a book to the woman.** 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보기에서 똑같은 단어들이 등장해도 **The woman is handing a book to the man.** 이라고 하면 정반대 표현이므로 오답이다.

**D. 비슷한 발음의 단어 함정**→LC의 특성상 발음의 중요성은 상당하다. 그래서 비슷한 자음 l과 r, b와 p, f와 v 등은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빈출 유형이 ladder와 letter이다. 가령 사진상에 어떤 남자가 빌딩의 한쪽에 세워 둔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다고 하자. 낭독되는 문제들 중에 **The man is climbing the ladder.**와 **The man is opening the letter.**가 있다고 하면 문제를 풀때 사다리를 기대한다고 해서 '레러'라는 발음에 신경 쓰는 것도 물론이지만 전체 문맥을 보고 **opening the \_\_\_\_\_** 라는 부분에서 절대로 사다리가 아님을 알고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발음자체에 너무 연연하기 보다 문장 전체를 통째로 읽기 연습하면서 덩어리 표현에 익숙해져야 진정으로 LC의 고득점에 최단기간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더 자세한 유사 발음은 차후 수업시간에 연습한다.

**E. 관련어의 다른 의미 함정**→사진에 있는 같은 단어라도 그 단어의 다른 의미를 활용한 함정에 주의해야한다. 가령 park는 '공원'이라는 뜻과 '주차하다'라는 뜻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출제자는 이를 이용한 함정을 손쉽게 만드는 것이다. 즉, 사진에는 차 한 대가 길 모퉁이에 주차되어있다고 하자. 이를 표현한 정답은 **There is a car parked at the corner.**가 될 것이다. 하지만 오답의 보기로 **The car is driving into the park.** 라고 하면 같은 park가 들려도 '공원'이라는 의미가 사진 상으로는 맞지 않으므로 오답인 것이다.

####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찾아라

앞서서 오답 유형의 전반을 다뤘지만 정답을 찾는 핵심적인 전략을 살펴보자. 앞서 예틀 든 정답표현은 사실 정직한 편이다. 오답들은 앞서 유형에서 보듯이 대부분은 맞은 표현이지만

결정적인 한 두 군데에서 정답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이런 오답 유형을 아는 것이 오답을 걸러내는 과정을 통해 정답으로 가는 길이다. 하지만, 정답의 경우에는 허를 찌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주의해야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표현이 아닌 간접적인 표현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대비해야한다. 가령 어떤 남자가 벤치에 앉아 기타를 연주하고 있다고 하자. 앞서 함정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 (A) The man is praying on the bench.
- (B) The man is buying a guitar.
- (C) The man is performing on the stage.
- (D) The man is using a musical instrument.

보다시피, A번은 발음이 유사한 **pray**를 사용한 함정이다. 이렇듯 '비슷하게 들린다'는 자체는 정답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멀어지게 된다. B번은 **man**도 맞고 **guitar**도 맞지만 **buying**이라는 단어에서 답이 될 수 없고 C번은 사진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stage**에서 오답이 된다. 그리고 가장 답에서 먼 것 같은 D번은 **playing**라는 단어 대신 **using**을 **guitar**라는 단어대신 **musical instrument**(음악 악기)를 썼다. 이렇게 가장 답이 아닌 거 같은 것이 답이 될 수 있음은 출제자가 수험자의 허를 찌르는 것으로 대체어에 대한 연습도 게을리 해서 안 될 것이다.

## 파트 2

LC에서 파트 2만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사진이 있는 파트 1는 가장 쉽고 질문과 문제 보기도 있는 파트 3, 4는 듣기 전에 예상이라도 할 수 있는 반면 오로지 '청취력'하나만으로 풀어가야 하는 파트이다. 따라서 질문을 잘 들어야 함은 물론이고 A에서 C까지를 다 들으면서 정답, 오답을 가려내려면 기억력까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 푸는 요령은 있는 법. 하나씩 살펴보면서 구체적 전략들을 살펴보자.

-오답 패턴에 익숙해져라

### A. 같은 단어 함정(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포함)

토익 출제를 하는 ETS에 출제 위원 중에 심리학자가 있다. 출제 문제가 변별력을 갖으려면 청취력이 약한 이들이 쉽게 빠져드는 함정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파트 2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질문에서 나온 단어를 문제 보기에서 찾으려는 성향'이다. 가령, How was the food at the restaurant?(그 식당 음식 어땠어요?) 라는 질문에서 가장 잘 들리는 restaurant를 이용해서 The restaurant is not far from here.(그 식당은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라는 것은 전형적인 오답의 유형이다. 또 같은 단어의 다른 의미를 이용한 함정을 예로 든다면, Did you read the book I gave you?(제가 준 책 읽어 보셨어요?)라는 질문에 Yes, I booked the hotel yesterday.(네 어제 호텔 예약했습니다).라고 같은 book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뜻(책, 예약하다)을 이용한 함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역이용해서 파트 2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질문에서 나온 단어를 보기에서 그대로 쓰는 경우는 대부분 오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오히려 정답은 질문에서 나오지 않은 단어들 위주로 구성된 문장이 답일 경우가 많은 것이다.

### B. 관련 단어 함정

파트 2에서 같은 단어가 함정으로 쓰이는 경우 다음으로 많은 함정이 질문에 나온 단어의 관련 단어를 이용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앞서 나온 질문 How was the **food** at the **restaurant**?을 다시 예로 들면 Let's **eat dinner** at 7.(7시에 저녁 먹읍시다) 처럼 같은 단어는 없지만 food나 restaurant라는 단어와 연관된 eat나 dinner가 등장하는 것이다. 몇몇 단어에 연연하기보다 문장 전체의 의미파악에 신경써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C. 같거나 비슷한 발음 함정

LC의 특성상 파트 1과 2의 가장 대표적인 함정이 바로 이 유사한 발음함정이다. 주의할 점은 파트 3과 4에서는 발음 함정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대화나 낭독에서 나온 단어가 그대로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 파트 2의 유사 발음 함정을 예로 든다면, Did you fix the **copy** machine?(복사기 고쳤나요?)라는 질문에 I already drank too much **coffee**.(벌써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처럼 copy와 비슷한 coffee를 이용한 함정이 등장한다.

### D. Yes/No 함정(의문사 의문문과 선택 의문문에서 Yes/No는 오답)

100% 오답이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Where do you live?(어디 사세요?)라는 의문사

의문문에 Yes, I live across the street.(네, 길 건너편에 삽니다)라는 대답은 틀린 것이다. 또 Do you live in the town or in the suburbs?(시내에서 사시나요? 근교에서 사시나요?)라는 선택의문문에 No, I don't live there.(아니오, 거기 살지 않아요)라는 대답도 오답이다.

#### E. 의문사 함정

신토익으로 바뀐 이후에도 외형상 변화가 거의 없는 파트가 파트 2이다. 파트 1은 문제수가 10문제에서 6문제로 파트 3는 기존 30문제에서 39문제로, 파트 4는 기존과 똑같이 30문제이지만 신유형이 5세트 정도가 들어간다. 파트 2는 30문제에서 25문제로 문제수가 줄긴 했지만 문제 형태는 거의 그대로이다. 유형별로 봤을 때 변화가 있다면 비의문사 의문문이 더 늘고, 의문사 의문문의 대답이 어려워 졌다. 하지만 여전히 파트 2에서 의문사의문문은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유형이다. 가장 중요한 요령은 절대로 첫 단어 즉 의문사를 놓쳐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나머지 단어를 모두 다 들어도 의문사를 놓치면 엉뚱한 오답에 손이 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Where** did you buy the book?(그 책 어디에서 사셨어요?) 라는 질문에 I bought it **yesterday**.(어제 샀어요)라는 대답은 When ~? 질문에 대한 답변이므로 오답인 것이다.

#### F. 시제 함정

질문에 대한 문제 보기에서 다른 부분이 다 맞더라도 시제가 다르면 당연히 오답이다. 가령 Did you watch the movie?(그 영화 봤어요?) I will watch it tomorrow.(내일 그 영화 볼거야) 문맥상 영화감상에 관한 대화는 맞지만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질문과 같은 시제로 대답해야한다.

#### G. Because는 주로 오답이다

When will you watch the movie?(그 영화 언제 볼거죠?) Because I like action movie.(액션 영화를 좋아해서요)라는 대답은 오답이다. 파트 2에서 위의 Because~ 이하가 답이 되려면 Why did you watch the movie?(왜 그 영화 보셨어요?) 같은 질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Why~? Because~ 같은 질문-대답 패턴도 주로 오답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정답 패턴에 익숙해져라

#### A. 의문사에 익숙해져라

파트 2에서 의문사 의문문의 비중은 신토익으로 넘어오면서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한 문제 패턴이므로 의문사 질문의 첫 단어(의문사)만 잘 들어도 답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Who / Which / What~?**은 이름(사람, 부서, 직책 등), **When/What time~?**은 시점 표현이나 **As soon as, Before, After** 같은 접속사 표현, **Where~?**는 장소관련 표현, **How much~?**는 금액, **How often~?**은 숫자를 포함한 횟수, **Why**는 **For**나 **To** 부정사(~하기위해서)같은 이유 설명 표현이 답이 된다.

#### B. 제안문에는 'That's a good idea'나 'That sounds great'가 답이다.

구체적으로 제안문으로는 Why don't we/you~? How/What about~? Let's/Shall we~?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으로 주로 **That's a good idea. That sounds nice/good.** 같은 게 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점을 잘 기억하자. 반대로 이런 제안문이 질문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위의 두 예문은 함정으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도 주의하자.

**C. 답이 아닐 거 같은 게 답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의문사 의문문에서 나온 **When~?** 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다음과 같은 예제를 보자.

**When can you finish the report?**

A) At 5 p.m. yesterday.(어제 오후 5시)

B) As soon as I get an answer from my supervisor.(상사로부터 답변을 얻은 즉시)

**When** 의문문이므로 당연히 시간으로 답해야 하지만 **A**의 경우 시점이 맞지 않아 오답이고 오히려 **B**처럼 숫자가 나오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한 표현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

**D. 같은 시제로 답하는 것이 주로 답이다**

앞서 오답 유형에서 설명했지만 **When did you~?**로 물었다면 현재가 미래가 아닌 과거시제로 답하는 것을 정답으로 봐야한다

**E. 부정의문문은 긍정으로 묻는 것과 같다**

자칫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부정의문문이다. **Did you watch the movie?(영화 봤어?)**라는 질문과 **Didn't you watch the movie?(영화 안봤어?)**라는 질문을 다르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Yes/No** 대답이 가능한 질문이고 결과는 봤으면 **Yes**, 안봤으면 **No**로 답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파트 3

파트 1, 2와 달리 파트 3, 4는 공통적으로 문제지에 질문과 문제 보기가 등장한다. 단 차이점은 파트 3는 남녀의 대화, 파트 4는 일방적인 낭독이라는 점이다. 파트 1, 2가 전적으로 듣기능력에 의존한다면 파트 3부터는 대화나 낭독이 나오기 전에 문제와 보기를 얼마만큼 빠르게 파악하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사실, 2016년 5월 신도약으로 바뀌고 나서 LC에서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이 되는 부분이 파트 3이다. 파트 3의 대화 패턴이 길이가 더 한층 늘어났고 문제와 보기의 길이가 이전보다 훨씬 길어졌기 때문에 3문제를 천천히 읽으면서 풀고 난 다음 그 다음 문제 3개를 그때서야 보기 시작한다는 것은 문제 풀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 최소한 각 문제의 질문이라도 읽어두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화를 다 듣고도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해서 정답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파트 3에 대한 전략을 살펴보자.

### -문제지에 가볍게 표시하라

파트 1,2와는 달리 파트 3부터는 문제지에 있는 각 질문들과 함께 문제 보기까지 있다. 그래서 대화나 낭독이 나오기 전에 문제와 보기를 파악해야하는 독해력까지 동원해야 하므로 시간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된다. 따라서 답안지에 일일히 체크 하면서 문제를 풀 여력이 별로 없다. 대안으로 문제지에 너무 진하지 않게 각 질문의 키워드에 표시를 하고 들으면서 문제지에 있는 문제 보기에서 바로 답이 보이면 표시해나가고 LC가 다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답안지에 옮겨 적는 작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대화가 나오기 전에 질문을 파악하라

앞서 답안 작성 요령과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파트 3은 문제를 먼저 읽는 것이 정답을 찾는 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때 하나의 대화에 문제를 3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으로 와닿을 수 있는데 각 문제마다 키워드 한 두 단어를 표시해놓고 듣기를 시작하면서 들으면서 답을 체크해 나가는 것이 다 듣고 나서 기억력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표시를 해도 된다.

### -처음을 절대 놓치지 마라

파트 2에서는 질문의 첫 단어를 잘 듣는 게 중요하다면 파트 3에서는 대화의 첫 문장을 잘 듣는 것이 다음 이어서 나올 나머지 대사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각 대화마다 한 개 이상씩 나오는 주제나 목적을 묻는 포괄적 질문의 결정적 힌트는 대부분 대사 첫 부분에 나온다.

### -재표현(같은 뜻의 다른 표현)을 찾아라

파트 1과 2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대사에서 나온 부분이 그대로 답이 되는 문제 유형과 함께 뜻은 같지만 다르게 표현된 것이 정답이 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가령 질문에서 **How often does the woman watch movies?**(여자가 얼마나 자주 영화를 보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화를 들을 때 여자의 대사 중에 **I watch movies once a week.** 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자. 문제 보기에서 친절하게 **once a week**가 나오면 좋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every week**나 **weekly**와 같은 표현으로 바뀌어서 나온다.



**-질문의 답은 질문의 주어가 말하는 부분에 주목하라**

상식적인 얘기지만 파트 3에서 특히나 남자와 여자의 주고받는 대화라는 특성상 같은 질문이라도 **What does the man say about the movie?**와 **What does the woman say about the movie?**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질문을 먼저 읽고 그에 따른 해당 대화자의 대화를 주목하지 않으면 다 듣고도 이런 특정 사람의 대화내용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화의 끝에 잘 들리는 부분은 주의하라**

파트 2에서도 같은 유형의 함정이 있지만 대부분 파트 3에서도 마지막에 또렷이 들리는 단어나 표현은 주로 함정으로만 쓰인다. 가령, **When will they meet next time?**(그들이 다음에 언제 만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사를 들을 때, 여자의 대사에서 **Ok, we can meet Friday afternoon.**라고 하는 부분이 중간에 나오고 바로 이어서 대사 마지막 남자의 대사에서 **Anyway, I have to finish my report by Thursday.**(어쨌든 보고서를 목요일까지 끝내야겠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절대로 **Thursday**는 답이 아니다.

**-문제의 패턴에 익숙해져라**

**A. 대화에 답이 있는 문제**

파트 1,2와는 다르게 파트 3은 정직한 답이 상당수다. 대화에서 나온 표현이 단순히 함정으로 쓰인다고보다 질문에서 묻는 내용이 대화에서 그대로 답으로 되는 경우가 있으니 질문의 요지파악에 온 신경을 쓴다. 가령, **Who has the document?**(누가 문서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대화를 들을 때 **Mr. Smith took it from your desk this morning.**(오늘 아침 스미스씨가 당신 책상에서 가져갔어요)라는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화에 답이 있는 문제는 주로 구체적인 질문(who, which, what 질문)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이다.

**B. 재표현(같은 뜻의 다른 표현)을 찾는 문제**

주로 **When**이나 **How often/much**로 시작하는 질문의 답이 직접적으로 대화에 답이 있다기 보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보기에 등장한다. 따라서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C. 앞뒤 관계를 살펴야 하는 문제**

재표현이 답이 되는 문제보다 좀더 난이도가 올라간다. 가령 **How many people will be at the event?**(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대화의 흐름이 남: **We have 5 people in the team but, Tom and Gary will be on business trip.**(우리 팀에서 5명이 있는데 톰과 개리는 출장을 떠날거야) 라고 한다면 문맥상 3명이 참석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앞뒤 관계를 살펴야 하는 또 다른 주요 유형으로 시간 문제(When, How often)가 있다. 앞서 재표현에서도 시간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앞뒤관계를 살펴야 하는 문제도 많다. 특히나 이런 시간관련 문맥 파악 문제는 주로 답이 후반부에 있는 경우가 많음을 기억하자.

**D. 답을 암시하는 부분을 찾는 문제**

이 역시 앞뒤 문맥을 판단해야하는 문제와 흡사한 유추문제이다. 대화를 만들어보면

W: When should we meet, on Tuesday or Friday?(언제 만날까요? 화요일? 금요일?)

M: The sooner the better.(이른수록 좋습니다)

위의 대사에서 보듯이 언제 만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화요일임을 알 수 있다. 대사에서 직접적인 힌트도 특정 단어도 아닌 대화가 결론지어진 다음 논리적으로 맞는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대화에 직접적인 표현이 없이 유추해야하는 질문으로는 장소를 묻는 질문과 특정 대화자의 직업을 문제가 있다.

**E. 주제를 묻는 문제**

각 대화마다 거의 하나씩 있는 질문이고 거의 대부분 힌트는 대사 첫부분에 등장한다. 파트 3,4 모두 마찬가지지만 주제를 묻는 질문에 관한 첫 대사를 놓친다는 것은 여러모로 손해라는 것을 잊지말기 바란다.

## 파트 4

파트 3과 마찬가지로 '독해력'이 상당부분 고득점을 좌우하는 파트이다. 파트 3과 마찬가지로 낭독을 다 듣고 3문제를 연달아 푼다. 문제를 먼저 읽고 안 읽고 여부는 점수의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트 3과 다른점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낭독 즉, 연설, 라디오 방송, 소개, 광고 등이어서 대화문인 파트 3보다 더 길고 따라서 좀더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 -낭독이 나오기 전에 문제를 파악하라

파트 3과 마찬가지로이다. 역시 낭독 1개당 문제는 3개가 연달아 나온다. 3개의 문제중 주제나 목적을 묻는 첫 번째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문제는 세부문제이다. 이때 세부문제는 문제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 듣고 난 다음 푼다는 것은 지극히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낭독이 나오기 전에 문제 파악에 집중해야한다. 그리고 낭독이 시작되면 표시해둔 3개 질문의 키워드를 보면서 듣기에 집중한다.

### -질문의 순서대로 답을 찾아라

출제자가 뒤죽박죽으로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 대체로 대화의 흐름에 따라 3문제의 힌트를 차례대로 낸다. 그래서 문제의 패턴도 주제를 묻는 문제(힌트가 주로 대사 첫 부분에 등장함)는 먼저 내놓고 다음 세부적 질문을 두 번째, 유추문제(대화 끝 무렵까지 들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마지막에 배치하는 게 보통이다.

### -들리는 그대로가 답이다

특히 세부적 질문(파트 4의 60%)은 주로 답이 재표현 보다는 대화에서 들리는 그대로가 답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더욱 질문을 먼저 파악해 놓는 것이 급선무이다.

### -질문의 패턴에 익숙해져라(정답의 위치를 예상할 수 있다)

#### A. 포괄적 질문

대화의 전체에 관한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주제나 목적, 낭독 장소, 말하는 이나 듣는 이를 묻는데 구체적인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실제 문제를 풀 때 각 질문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굵은 표시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우선적으로는 대사 첫부분에 주목해야한다. 이때 정확히 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특정 부분에 답이 있다기 보다 곳곳에서 등장하는 반복되는 어휘나 표현을 통해 결론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What is the **purpose** of this conversation?(목적)

What is the **topic** of this talk?(주제)

**Where** is this speech being made?(장소)

**Who is making** this announcement?(말하는 이)

**Who is** this advertisement **intended for**?(듣는 이)

**What** is the man's **job**?(직업)

## B. 구체적 질문

구체적 질문은 대부분 대화에서 답이 되는 힌트를 그대로 보여주고 문제 보기에다 정답을 재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포괄적 질문은 대사 첫부분이나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끝까지 듣고 난 다음 답을 찾는 반면 구체적 질문은 말그대로 질문의 요지를 파악한 후 대화를 들으면서 답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포괄적 질문은 여러 차례 힌트가 나올 수 있는 반면 구체적 질문은 (거의) 단 한차례 힌트가 나온다. 따라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How** will the man get to work?

**When** will they meet?

**What** does the woman have to bring?

**Who** has the report now?

-정답의 패턴에 익숙해져라

## A. 대화에 답이 그대로 있는 경우

주제를 묻는 경우, '누가 보고서를 갖고있는가' 등의 특정 인물이나 사물에 대해 묻는 질문, '몇시에 만나기로 했는가' 등의 특정 시간을 묻는 질문이 그러한데 주제의 경우에는 처음부분을 먼저 주목하는 반면 나머지 세부적 질문들은 힌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 B. 재표현(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 답이 경우

똑같은 시간이나 횟수를 묻더라도 답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아니라 재표현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Monday through Friday** 라고 했다면 **weekdays**가 답이 되는 식이다.

## C. 내용을 다 들은 다음 유추해서 푸는 경우

난이도가 가장 높다. 주로 파트 4에서는 대화자들의 직업이나 대화 장소를 묻는 경우 직접적으로 대화에 나오는 단어가 답이 되기보다는 내용을 들은 다음 그에 따라 유추해야 답이 나오는 경우다. 가령 대화에서 **I need your attention before you exit the bus.**(버스에서 내리시기 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부분에서 대화자의 직업이 안내원임을 알 수 있는 식이다.